



대학평가의 발전방향

정재국 |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 대학평가가 도입된 것은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의해서였고, 이는 1994년에 평가인정제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학평가의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언론사나 임의단체에서 자신들이 선정한 몇 가지 평가항목에 의하여 대학을 평가하는 등의 다양한 대학평가 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평가의 바람은 안일과 정체에 안주하고 있던 우리나라 대학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나, 외형에만 치중하고 내실을 소홀히 하는 등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분위기의 변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더 이상 상아탑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하였으며, 무한한 경쟁에 휘말리게 하였다. 산업발달에 따른 전문고급인력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위기의식 및 증가하는 대학입학정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진학생 수 등이 대학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의 변화 속에서 대학들은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방향설정에 고심하고 있을 때이었기 때문에, 대교협에 의하여 도입된 대학평가제도는 대부분의 대학들에게 생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대학평가는 지난 10여년 간 꾸준히 발전하여 대학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법 면에서도 발전을 이룬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난 대학평가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II. 대학평가의 특성

모든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평가대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평가는 본질적으로 평가를 받는 자신에 의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가 되어야 한다. 대학이 다른 기관과 구분되어야 하는 점은 대학은 교육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데 있다. 즉 대학의 발전이라 함은 이 두 가지 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일치된다.

따라서 대학의 평가는 “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가?”, “새로운 가치창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학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며, 평가척도의 검토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성패 여부를 평가하는 객관적 평가척도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평가척도가 보편 타당하게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가의 어려움은 남아 있게 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결과는 대학교육 뿐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교육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합적 효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결과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가치창조, 즉 연구기능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말 그대로 새로운 가치를 구시대적 가치관에 의해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와 같이 대학평가에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쉬운 길로 우회함으로써 대학발전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평가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안목과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학평가는 어떤 목적의 평가이든 세계화로 대변되는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학 스스로의 노력을 유도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이 평가의 주체가 될 때에만 대학평가가 대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학 자체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몇 가지 외형적 평가척도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대학평가는 전문성을 띠어야 한다. 평가항목과 각 항목별 기준의 개발, 평가영역이나 항목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결정 등에 있어서 학술적·기술적 능력은 물론, 조직과 운영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을 평가하는 일에는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고도의 지적 안목이 요구된다.

셋째, 대학평가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설립목적, 규모나 역사,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제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평가하는 것은 대학교육을 획일화시키는 등의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살려 그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과 평가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Ⅲ. 대학평가의 유형 및 변천

1990년대에 한국의 대학들에게 불어닥친 대학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대학 스스로 평가한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아냄으로써 대학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얻어내지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평가 인정제가 있다. 이는 현재 대교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정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대학제정을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학 학사와 운영 전반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이며, 대학발전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 활동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언론사나 임의단체에서 선정한 몇 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열 순위까지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언론사의 정책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은 피평가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모든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평가대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평가는 본질적으로 평가를 받는 자신에 의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가 되어야 한다.

”

대교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평가인정제는 1주기(1994~2000년) 평가를 끝내고 2주기(2001~2005년)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1주기 대학평가를 통하여 대학평가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평가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과의 활용 등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이 또한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들 중에서 주된 쟁점으로 나타난 것들은 첫째 평가 주기, 둘째 평가결과의 발표, 셋째 평가부문, 항목, 기준, 척도 설정, 넷째 평가 절차 및 평가위원 구성, 다섯째 평가의 주체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1주기 평가의 경험과 이들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교협에서는 2주기 평가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정하여 놓고 있다. 즉 평가의 주기는 7년에서 2년 단축된 5년으로, 평가영역 및 항목은 평가항목 수를 축소하며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대학을 유형별로 다양화하며, 평가결과의 발표형식은 인정/불인정에서 그룹별 서열화를 신중히 고려하고, 평가위원의 구성은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산업체, 정부,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로 다양화하는 등의 방안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평가의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재정 지원사업은 전체 대학이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평가하여 신청 대학 모

두에게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과, 재정지원 신청 자격이 일부 대학으로 한정되거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우수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지원사업으로는 대학기반 조성사업(1994~계속),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1981~계속), 공·사립대 시설·설비 확충사업(1990~계속) 등이 있으며, 특수목적사업으로는 대학원 중점육성 지원사업(1995~1999),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지원사업(1996~2000), 이공계 대학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사업(1996~계속),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1996~계속),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1997~2001) 및 산업대 특성화 지원사업(1998~2002)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결과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평가 주관부서가 교육부 내에서도 분산되어 있으며, 전문화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평가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이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언론사에서도 대학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명분하에 자체기준에 의하여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사의 일간지에 공개하는 방식의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언론

사는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관련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 평가에서 대학들은 완전히 피평가자로서 평가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초기의 언론사 평가는 그 평가지표가 시설물의 평수라든가, 교수의 수 등과 같은 정량적인 교육의 간접요인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어 기존의 사회 인식에 의하여 평가되어 왔던 결과와 지나치게 상반되는 결과로 인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평가지표가 재검토되고 개편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작업에 대학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

IV. 대학평가의 발전을 위한 제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평가는 어떤 유형의 평가이든지 간에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목적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제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 동안 시행되어진 평가들도 모두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를 둘러싼 과제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실정이다.

이들 주요 과제들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교협과의 평가인정제에서 제기된 과제

- 평가척도의 다양화 및 피평가 대학의 특수성에 관련된 과제
- 정량적 평가척도의 조정 및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관련된 과제
- 평가결과의 공개범위 및 활용에 관련된 과제
- 평가 주기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과제
- 평가기관 및 평가인력에 관련된 과제
- 대학평가인정제에 대한 이해 및 신뢰성에 관련된 과제

②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에서 제기된 과제

-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방향 수립 및 대학의 특성화에 관련된 과제
- 평가 전문기구 및 평가위원의 전문화에 관련된 과제
- 평가의 내용에서 밝혀진 문제점 개선에 관련된 과제(이들 문제점들에는 교육부의 정책 유도 지표, 대학의 특성화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정량적 평가지표의 등급화에 따른 문제, 대응투자에 대한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재정지원의 집중화, 사업별 평가일정의 난립화, 현지방문평가의 형식화 등 평가의 방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에 관련된 과제

이와 같은 과제들은 지난 10여년 간 대학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대교협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분석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며, 피평가자인 대학들은 평가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평가가 진정으로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는 평가에 대학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대학들이 자신들의 평가를 위하여 능동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에겐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다. 대교협과 교육부가 이 자극제의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평가를 받아온 대학들은 이와 같은 평가가 일부의 제도개선이나 시설보완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대학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지 않고 있다. 대학의 평가는 시대적 추세이며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하에서 각종 평가의 물결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이다. 평가의 결과가 기

“

대학평가는 진정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

대 이하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하게 표출되고,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번지기도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평가의 결과가 기대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대학구성원이나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대학들로 하여금 평가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요인이 된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V. 맺는 말

지난 10여년 간 시행되어 온 여러 유형의 대학평가가 대학발전에 기여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한계성을 보임으로써 대학평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즉, 대학평가는 진정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과제들로 압축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과제들은 대부분이 단기적인 논의를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대학의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평가철학의 개념정립으로부터 하나하나를 차분히 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필요하다면 한두 달 전에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그 위원들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현재의 평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이든 민간단체이든 그 기관의 필요성에 의하여 대학을 평가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대학의 발전을 크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평가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때 방법이 무엇이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발전방향을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정재국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숭전대 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